

한우 자조금 11

2010년 11월호 미틈달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

※ 미틈달은 11월의 순우리말입니다.

특집

2010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p.02~03

‘연말 대대적 소비촉진행사로 소값 하락 대응’ 공감 p.06~07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참신한 발상으로 한우를 알릴 새로운 방법 제시 p.04

한우가격 안정화 유도 긴급예산 조정 p.05



쇠죽바가지

쇠죽바가지 ▶ 소에게 먹일 쇠죽을 짓거나 퍼 담을 때 사용하던 소나무 등으로 만든 바가지이다.



“2010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한우 할인판매로 한우가격 안전도모



▲**나눔행사** 유정복 장관과 남호경 위원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서울재가장애인협회 새누리집 윤도홍 대표와 아이비복지센터 은홍수 대표, 하남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은희 대표에게 각각 20kg의 한우고기를 전달했다.

지난 11월 1일은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한 ‘2010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이었다. 한우 먹는 날은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그동안 한우를 지지하고 사랑해준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17만 한우농가와 한우자조금이 마련한 행사다. 민족문화의 상징인 한우를 생산자와 유통업체·소비자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다. 한우 먹는 날 기념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서는 직거래장터와 각종 시식행사 등이 어우러져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협유통과 축협판매장, 대형 할인마트들이 참여해 일주일 동안 10~40% 할인 판매를 진행해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우리 한우를 즐길 수 있었다.



▲**이호리 팬 사인회** 개막행사에 이어진 한우홍보대사 이호리씨의 팬 사인회도 인기를 끌었다.



▲**인증점 시식회** 한우판매 인증점들도 한몫 했다. 한우 판매인증점들은 행사장에 한우고기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전시, 시식회 및 할인판매로 발길을 잡았다.



▲**쌀버거 나눔** 행사장 안쪽에 배치된 한우쌀버거 나눔 행사장도 인파로 북적였다. 한우쌀버거는 첫째 날 2천 550개, 둘째 날 3천개가 한우고기를 구입하려고 찾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웠다.



▲**고기판매** 잠실 종합운동장 행사장에서는 한우고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장사진을 쳤다.

전국 방방곡곡 한우먹는 날 이모저모

할인판매 · 시식행사...한우인 '이웃사랑' 실천 감동의 물결



경기 • 10월 29, 30일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한우 소비홍보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우고기와 야채를 전병으로 100미터 이상의 길이로 말아 기네스에 도전하는 행사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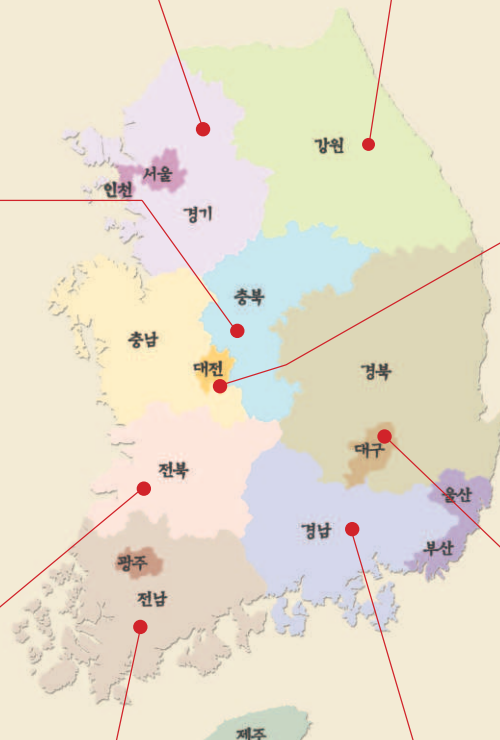
충북 • 청주시 방서동 농협청주물류센터에서 충북 한우 브랜드의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충북농협과 충북한우협회는 나눔축산운동의 일환으로 YWCA, 소년소녀가정 어린이재단에 한우고기를 전달했다.



전북 • 전북지역 행사가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축협 조합장들과 한우사육농가들이 참석해 소비자들과의 행복한 만남을 이어갔으며, 지역 브랜드 한우고기 할인판매행사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전남 •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내 일대에서 열린 전남행사에는 한우농가, 지역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우등심 숯불구이 시식행사와 한우송아지를 경품으로 증정했다.



강원 • 춘천철원축협 하나로마트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강원도 개막행사에는 강원도 한우 6개 브랜드가 참여해 3일 동안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행사를 실시했으며, 시식행사도 가졌다.



충남 • 대전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충남도행사에서는 정육세트 60개를 충남도와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경북 • 대구 달성유통센터에서 열린 경북도행사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한우 역사관 및 홍보관을 운영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하도록 했다.



경남 • 창원시 만남의 광장에서 2천여명의 소비자들이 행사장을 찾은 가운데 경남행사가 열렸다. 협회는 창원시 북면에 위치한 성심원에 한우불고기 350인분을 전달하고 나눔축산운동에 앞장섰다.



제주 • 서귀포시 한우명품관에서 열린 제주도행사에서는 지역 독거노인에게 한우 나눔행사를 진행했으며 한우고기 시식 및 할인판매 등을 진행했다.

참신한 발상으로 한우를 알릴 새로운 방법 제시

2010 한우문화공모전 UCC부문 ‘우(牛)선생의 한우고실’ 대상 영예



한우자조금은 지난 2일 잠실종합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 기념식에서 2010 한우문화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UCC부문의 ‘우선생의 한우고실’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우선생의 한우고실’은 한우의 우수성을 알기 쉽고 재밌게 표현, 시선을 끌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문화공모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우에 대한 상상 공모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디자인부문 445점, 사진부문 342점, 아이디어부문에서 스토리텔링 75점, UCC 24점, 디지털컨텐츠 8점 등 총 89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우선생의 한우고실’ 출품팀은 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고, 대상 외에 각 분야별로 황소상, 암소상 등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각각 300, 2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이번 한우문화공모전은 특히 UCC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한우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신선한 시도가 눈에 띄었으며, 처음으로 공모를 받은 스토리텔링 등에서도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어 한우문화 확산에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시상내용	출품부문	작품명	수상자 성명
대상	UCC	우선생의 한우고실	서승욱, 이상민, 허은지
황소상	디자인 스토리텔링	세계인의 입맛에 본이되다 韓牛가	한유미 김준래
암소상	디자인	약속	박광희, 문용진, 김중현
	사진	동행	김시동
	UCC	벗	박새미, 이명현, 최보성
	스토리텔링	한우국	손진호
송아지상	디자인	비싼가격이 아닙니다	김현지, 손세현
	사진	꽃밭속의 청정한우들	이대현
	UCC	한우	문중호
	스토리텔링	한우전	양가희



▲대상 : 우선생의 한우고실



▲암소상 : 벗



▲황소상 : 세계인의 입맛에 본이되다



▲암소상 : 동행



사진



▲암소상 : 약속



▲암소상 : 한우국



UCC



디자인



스토리텔링



한우가격 안정화 유도 긴급예산 조정

관리위원회 개최...2011년 자조금 예산계획 설명



추후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과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한우사육농가의 위기감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우자조금이 긴급 예산을 변경 투입해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제 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4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관리위원들은 내년도 한우산업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우자조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한우산업을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는 자조금사업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

연말 한우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홍보를 강화한다. 한우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15억원을 증액해 TV·라디오 광고와 소비지 유통 및 판매를 지원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사육심리 안정 및 소비자의 한우 소비욕구를 증진하고 한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201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1년 한우자조금 조성 금액은 296억8천만원(농가 거출금 124억8천만원, 정부 지원금 90억원, 2010년 이월예상액 82억원 포함)이다. 내년도 한우 산업은 가격 하락 및 FTA 등을 통한 농가 위기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가격 안정을 위한 활동 강화 : 우월성·차별성 홍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판매 확대에 역점

직거래 장터 확대 및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코어 마케팅을 강화하며 한우 직거래 판매처의 홍보를 활성화한다. 또한 다양한 소비층의 확대를 통한 소비 홍보 활동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미국산 수입육에 대응해 차별화된 공격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우농가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강화

‘10만 저능력우 도태 운동’ 추진 등 암소 출하물량 조정을 통한 도축두수의 급격한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며 계도활동 등을 통해 농가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소비자 인식전환 유도로 소비활성화 확대

쇠고기 이력시스템 홍보 및 유통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요리 개발 및 한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로 경쟁력 확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자조금 사업 활성화

이와 함께 2011년 한우자조금 신규사업으로는 한우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생산자 단체 정책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남호경 위원장은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라 최근 한우경락가격과 산지한우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우자조금이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대대적 소비촉진행사로 소값 하락 대응’ 공감 과잉사육두수 조절 시급과제 지적 쇠고기 원산지 철저한 관리 강조



한우자조금은 11월5일 전국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유통자문위원회를 개최, 현재 소값 하락에 대비한 소비활성화 대책에 의견을 모았다. 한우자조금은 연말까지 한우공급 과잉 및 소비감소에 대한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유통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를 기획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 명단 =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 박영만 서울 축산물 공판장 중도매인회 회장, 변상규 이마트 신선축산 주임, 김민규 착한고기 육가공장 대표이사, 조인천 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 안심축산마케팅부 부장, 박준우 농협유통 팀장, 황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부장



황 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를 통해 소비촉진 계기가 되었다. 참여해준 유통업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최근 한우 도축물량이 많아 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소비방향을 점검하고 촉진 대책을 찾아보자.

Q1. 300만두 이상 증가된 현 시점에서 유통업계 상황은 어떤가?



조인천 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 안심축산마케팅부 부장 9월까지 한우 출하량이 감소하다가, 10월 공급량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09년도 3만5천200두 대비, 10년도는 4만두 이상으로 공급과잉 상황이다.

수입육은 3년간 월 2만톤 넘은 적이 없다가 3/4분기 이후 2만톤이 넘었다. 미국은 주요 수출 중심국으로서 과거 호주산의 1/2 물량이었는데 3/4분기 미국산이 호주산과 비슷한 물량이며, 그 중 갈비물량이 폭발적이다. 미

국산 갈비 수입량 증가는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등 로스 부위 가격하락에 큰 영향을 준다.

수입육은 주로 일반 외식업체에서 사용해 촛불사태 이후 수입육 거부감이 둔화되고 있다고 본다. 한우 수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쇠고기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다.



박영만 서울 축산물 공판장

중도매인회 회장 일요일 오전부터 수요일까지 도축대기 한우가 1천두 넘는다. 일주일에 80~90두가 가능도 축두수인데, 한계점을 넘어섰다.

공교롭게도 SBS TV에서 한우가격이 폭락한다고 보도가 나가면서 경락가격이 갑자기 더 떨어졌다. 4일, 5일 경우 1등급은 kg당 1천원이 빠졌고 1++등급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Q2. 한우산업이 안정적이려면 현재 과잉된 두수 정리가 필요하다. 20개월령 이상 암소가 126만두 가량된다. 한우협회에서는 현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과잉된 사육두수 조절 차원에서 '저능력 암소 자옴도 태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12월 초쯤 유통업체와 연계해 암소 판매 이벤트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변상규 이마트 신선축산 주임 이마트는 우시장에서 암소 생체를 구입하는데, 암소는 등급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초음파로 1등급 이상을 예상해도 60%가량은 1등급도 못미친다. 소비자들은 2등급을 구매하지 않다

보니 암소위주 구매는 포기한 수준이다.

암소 소비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가격이 싸지 않다.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 때 한우 50% 파격행사를 진행해 100톤을 판매했다.

하루만에 고기 10일치를 판매했지만, 할인으로 인한 마이너스 매출이 났다. 암소 가격이 싸지 않아 소비자 구매를 끌어낼 정도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

정육점은 소규모 대형마트와 경쟁이 어렵다. 게다가 반짝 세일행사는 후유증이 더 크다. 소비자들은 세일 전 가격에 부담을 느껴 세일할 때만 구입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한우가격을 비싸다고 체감한다.



김만규 착한고기 육가공장 대표이사

우리 업체는 유통 및 취식이 그 자리에서 이뤄져 소비자들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암소 2등급을 취급하며 4~6산 암소도 섞어 판매했으나 소비자의 반응이 나빠 클레임 대상이 되어 암소는 취급하지 않는다. 산자수 확인은 이력제로도 확인할 수 없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부장

암소는 출하전 단기비육 3개월은 해야 출하하는데 현재 한우값이 떨어지니 농가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우시장에서는 기존 2백만원이 넘는 송아지 가격이 150~160만원으로 거래되거나 않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소비촉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통업체와 한우자조금, 한우협회가 12월 중으로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암소 소진을 포함한 한우소비 촉진안을 각 사별로 마련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자.



한우의 안전성과 우수성, 어린이에게 알려

품질평가원, 우리 축산물 알기 도전 골든벨 개최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10월 31일 과천시민회관 내 체육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가 퀴즈왕!! 우리 축산물 알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 심사를 거친 100명과 현장 접수 50명의 학생이 참가해 우리 축산물 알기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으며 함께 온 가족들도 우리 축산물

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는 미래 축산물의 소비주체인 어린이들에게 축산물 등급제와 한우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축산물에 대한 애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특히, 인기 가수 아이유의 특별공연과 인기 개그맨 박영진의 사회로 참가자들은 생소할 수 있는 우리 축산용어와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홍보전시관에서는 축산물 등급제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전시물을 관람토록 했으며, 한우 불고기 시식, 한우다트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함께 노트북, 전자사전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했다.



LG CNS와 한우소비촉진 공동캠페인 전개

한우와 함께하는 즐거운 점심시간

한우사랑 기업 공동캠페인이 지난 10월 20일 LG CNS에서 진행됐다. 한우자조금은 한우사랑 캠페인에 동참하는 LG CNS를 ‘한우사랑 기업’으로 위촉하고 구내식당에서 한우불고기를 제공, 한우등심 시식회를 가졌다. 또한 시식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우선물세트를 증정하는 깜짝이벤트와 현장 예약·판매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의 맛 대표’ 한우 이미지 드높여

G20 성공기원 국궁페스티벌에서 한우불고기 시식행사



11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0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MBC에서 특별기획한 국궁페스티벌에

서 한우자조금은 10월 29~30일, 양일간 한우불고기 시식회를 열어 한우 우수성을 홍보했다. 한국의 용맹과 맛을 상징하는 국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한우가 같이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관람객에게 물렛이벤트를 진행해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곽 완 섭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TMR의 효과적 이용

사료비 절감과 고급 한우육 생산 필요

우리나라는 사료용 곡물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사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앞으로 사료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존사료자원 개발 및 이용이 필수적이다.

향후 한우 산업계는 사료비 절감과 고급축산물 생산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이의 한 방법으로 현행 배합사료-볏짚 급여체계를 부산물발효사료, TMR사료로 부분 또는 완전 대체를 통하여 값싼 지역 부산물사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과 고급 한우육을 생산하는 것이다.

반추위 안정화로 육량·육질 향상

TMR은 분류상 완전 TMR과 부분(유사, 세미) TMR로 분류되며, 대부분 급여 전까지 발효가 진행된 것을 이용하게 된다. 자가이용 가능한 사료원료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연중 안정적 확보 가능 원료, 대량 생산 되는 원료, 균일한 품질의 원료 (정기 분석 필요), 값싼 원료, 기호성 양호한 원료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급여하다가 중단되면 반추위 안정화를 해치는 일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TMR 급여 효과로는 무엇보다 반추위 안정화를 들 수 있다. 영양 성분과 균형이 잡힌 사료혼합물이 지속적으로 반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추위 환경이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되어 좋은 효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료 에너지, 단백질 균형 섭취로 반추위미생물 증가 및 섬유소 소화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사료섭취량 증가, 증체율 향상, 대사성 질병 예방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궁극적으로는 출하체중 증가와 고급육 출현율 향상의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상기한 장점 외에 단점도 발생되는데 무엇보다 배분, 배노 횟수 증가로 우사바닥이 질척해지며, 사양관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증체 성적이 불량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목표 증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TMR 섭취가 중요하다.

육성기 급여 시 가장 효과적

자가 TMR, 발효 사료는 특히 사료효율이 좋은 육성기에 이용함이 가장 효과적이며, 육성우의 골격과 배통을 최대한 키우는 일은 출하체중 및 고급육 출현율 향상의 근간이 된다. 모름지기 한우 고급육 사양은 겨울 눈사람 만들 때 눈몽치기와 같은 일로서 처음에(육성기에) 눈을 크고 단단하게(골격과 배통을 크게) 몽치면 이후 저절로 굴러가면서 큰 눈사람이 만들어 지는 것과 같은 원리를 유념해야 한다.

“가짜한우 꼼짝마!” 전국 판매점 대상 유전자 검사 활발 올 하반기 1천104건 샘플검사, 78건 비한우형 판명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등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탈미를 붙잡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한우자조금은 한우유전자 검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전국 한우판매점 중 무작위로 1,385건의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평균 92건(6.6%)이 비한우형으로 판명되었다. 이 중 판매가 가장 많은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총 962건의 샘플을 검사한 결과 80건(8.32%)이 비한우형으로 나와 한우의 투명한 유통판매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한우유전자 검사를 연중 내내 진행하며 유통감시단과 소비자가 의뢰하는 시료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한우전문점 전방위 성공관리기법 공유 분야별 전문가 초청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실시



제 5회 한우전문점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이 지난 11일 논현 1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한우전문점을 영입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업자 중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교육에서는 한우전문점 운영 시 필요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은 특화된 한우전문점 인테리어 기법을 주제로 진익준 대표(디자

인 그룹 제이원)가 인테리어의 주안점 및 조명기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영숙 약선요리연구가(정림)가 한우와 약선의 궁합에 대해 두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세 번째 강연은 오군택 대표(LSM코리아)가 한우음식점 매장홍보방법과 직원관리에 대해 말했으며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한우전문점의 절세절약 기법을 주제로 정육식당의 과세와 면세분의 관리기법에 대해 강연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판매 인증점

단풍미인한우홍보관

• 주소 : 전북 정읍시 신정동 163-4 • 전화 : 063-536-8855

정읍의 아름다운 경치와 고품질 명품 한우의 참 맛이 어우러져,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은 단풍미인한우브랜드만 사용하는 직영점이다. 1층은 홍보전시관과 판매장, 2층은 한식당, 4층은 스테이크하우스(스레스토랑)로 운영하고 있다. 최상의 질 좋은 쇠고기를 최고의 서비스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한우 쇠고기 명품관이다.



한우뉴스

동물유전육종연구회 · 한우협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국한우협회와 동물유전육종연구회가 한우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제 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양 단체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산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각종 산업화 전략 수립 및 연구사업을 수행해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전, 사업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협약서에는 ‘한우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산업간 정보공유,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 제언, 기타 한우산업 분야 상호협력 및 기술교류’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인위적 조정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 가중돼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안) 공청회, 등급 개선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8일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우 사육기간과 한우 맛의 연관성 조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영남대 최창본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와 농식품부 노수현과장의 ‘소도체 등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농식품부는 사육기간 연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방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등급기준을 개선해 생산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BMS(근내지방도) No.9를 삭제하고, 육량 기준 역시 C등급의 기준을 육량지수 62.00미만에서 1단계 62.63미만, 2단계 63.28미만으로 단계별로 상향시키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참예한 사안인 만큼 시종일관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우농가들은 BMS No.9 삭제와 사육기간 단축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답을 개량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의 김경의 성남시지부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고 강도높게 지적하며 소비자까지 개선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노수현 과장은 “현장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방송협찬



한우자조금은 10월부터 MBC 월화드라마 ‘역전의 여왕’을 통해 한우 PPL을 시작했다. ‘역전의 여왕’

은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으며 위태롭게 하루를 버티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으며 베테랑 연기자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공감가는 대사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



11월 2일 6부

황태희(김남주)는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어 자녀를 돌볼 수 없자 어머니에게 한우갈비세트를 선물로 주며 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11월 9일 8부

한우전문점을 찾은 황태희와 부서 사람들은 돈이 적어 치돌박이 된 장찌개로 점심을 먹는다. 이때 라이벌 관계의 백여진(채정안)과 그 팀원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 힘내자며 한우꽃등심으로 식사를 한다.



청소년 한우 맛체험

- ① 전북 김제·백석초 | 10월 6일
- ② 전북 전주·서전주유치원 | 10월 11일
- ③ 전남 목포·부영초 | 10월 12일
- ④ 강원 평창·평창중 | 10월 14일
- ⑤ 강원 영월·영월고 | 10월 25일
- ⑥ 경기 안성·비룡초 | 10월 26일





시·군지역 소비홍보

- ① 전남 광양·광양숯불구이축제 | 10월 8일
- ② 강원 횡성·횡성한우축제 | 10월 15일
- ③ 전남 신안·신안빨낙지축제 | 10월 16일
- ④ 경기 파주·파주개성인삼축제 | 10월 16~17일



시·군지역 소비홍보

- ⑤ 경기 가평·가평 시식회 | 10월 22일
- ⑥ 강원 원주·간기대회 시식회 | 10월 30~31일



12월의 할 일

일반관리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를 빠짐없이 기록·정리하고, 새해의 경영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생산 및 투자, 손익 등 세부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축사 및 운동장에 얼음이 얼어 소가 미끌어지면 부상 및 유산의 위험성 등이 있으니 얼음이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축사 안으로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축사주변의 장애물을 치워 주고, 북서(동)쪽의 강한 찬바람이 축사내로 불어와 소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윈터커튼 등으로 바람막이를 하여 체온저하로 인한 사료낭비를 막고, 호흡기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되, 지나친 보온으로 인하여 환기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지붕천장의 통풍구나 바로 밑 부분은 개방하고, 한낮 따뜻할 때에는 윈터커튼을 적당히 개방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축사바닥이 습하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므로 깔짚을 충분히 깔아준다. 겨울철에도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기(파이프)가 동파되거나 물이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양관리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유지를 위해 유지영양소 요구량이 10~30% 정도 증가하므로 사료는 기준량보다 조금 늘려 급여하고, 소가 언 사료를 먹지 않도록 사료보관은 물론 사료조에 물이 들어가거나 남아 있는 사료가 침 등이 묻어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비육말 기에는 사료 급여횟수를 3회 이상으로 늘려주고 남아 있는 사료는 모아서 육성우 등 다른 소에게 급여한다.

군사 시 군당 사육두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 낭비가 커지므로 가급적 5두 이내로 하되, 비슷한 개체끼리 군편성을 하고, 사료통 폭은 두당 80cm 정도 확보하며, 가급적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섞어 급여함으로써 개체간 발육편차를 줄여야 그 군의 생산성 및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방역 및 위생관리

적절한 보온 및 환기관리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질병발생을 줄인다. 특히 송아지는 기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위축되어 설사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조 및 차량용 소독약살포시설(축사면적 300㎡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소독실시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초지 및 사료포관리

새로 조성한 초지는 서리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습기가 많은 곳과 밤에 얼고 낮에 녹는 곳은 따뜻한 낮에 롤러로 진압한다. 초지 조성 시 제거하지 못한 잡관목을 완전히 제거한다. 소가 먹다 남긴 풀이나 잡관목을 제거하고, 빈곳이 많은 초지는 이듬해 봄에 보파할 준비를 한다. 새해의 목초 및 사료작물 생산계획을 세운다.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표지이야기

쇠죽바가지

우리 한우는 예로부터 여물(마른풀)을 가마솥에서 푹 삶아내는 '쇠죽'을 먹었다. 이를 화식(火食)이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소 먹이일 것이다. 사람들이 밥을 지어 먹는 것처럼 같은 한집 식구로 인정받았던 한 우에게도 정성을 들여 쇠죽을 요리해서 먹였던 것이다. 아직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쇠죽을 끓여 먹이는 곳이 꽤 있는데 이 쇠죽을 젓거나 퍼 낼때 사용하는 것이 쇠죽바가지이다. 주로 소나무 통나무를 손잡이와 움푹 패인 홈으로 가공해서 바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지방에 따라 '쇠물구박'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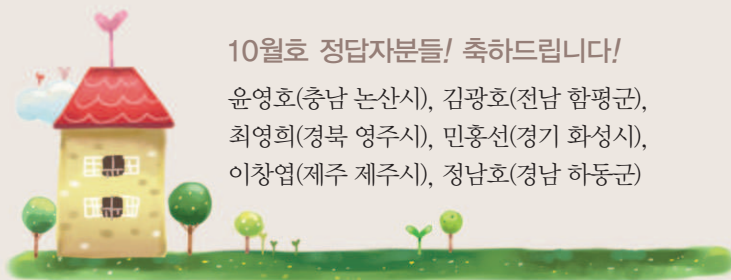


애독자 코너

한우에 대한 상상을 주제로 진행한 2010 한우문화공모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디자인, 사진부문과 새롭게 UCC, 스토리텔링, 디지털콘텐츠 부문이 추가되어 총 894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UCC부문의 '○○○○ ○○○○'은 한우의 우수성을 알기 쉽고 재밌게 표현해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한우문화공모전의 대상작 이름은 무엇일까요?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10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윤영호(충남 논산시), 김광호(전남 함평군),
최영희(경북 영주시), 민홍선(경기 화성시),
이창엽(제주 제주시), 정남호(경남 하동군)

전국 한우像 순례 ②

행복한 가족과 그들을 지켜주는 한우

서울 강동구 성내동 농협사로 본사 건물 앞에 설치된 한우상이다. 1989년 구 축협중앙회 사옥으로 이용되었던 이 건물 앞에 준공과 함께 건립된 것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한마리가 남자의 내민 손위에 앉아 있고, 애기를 안은 부인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눈길을 멀리 보내고 있는 장면과 함께 행복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듯 수호신같은 한우가 그 곁에 앉아 있다. 유구히 우리와 함께 해온 또 하나의 가족, '한우'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비매품 제6권 제11호 통권 제61호 발행 2010년 11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케이타워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김미미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저능력 암소를 도태하여
암소 개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적정 사육두수도 유지합니다.”

저능력 암소 10만두 도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합니다.

- 번식간격이 길거나 노산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암소를 도태 합니다.
- 이모색 발현으로 한우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암소를 도태 합니다.
- 우량형질의 소를 육성하고 불량형질의 소는 도태 합니다.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합니다